

여수시, 덕양양지바름공원에 미세먼지 차단숲 들어서



전라선 옛철길에 도심 속 치유공간으로 마련 “시민 건강 지키고 코로나로 지친 마음 달래”

여수시는 구 덕양역사가 있던 전라선 옛철길 양지바름공원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위한 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덕양 양지바름공원은 철도폐선부지를 활용한 도심 속 공원으로 산단과 인접해 있어 미세먼지에 취약한 곳이었으나, 이번 차단숲 조성으로 시민들

의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도심 속 치유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탄소중립을 유도하는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국비 15억, 시비 15억 등 3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부터 조성을 시작했으며 3ha의 숲과 190m의 산책로가 들어섰다.

지난달 30일 열린 준공식에는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해 여수시의회, 유관단체,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시민들의 휴식처가 탄생한 것을 함께 축하했다. 미세먼지 흡착과 흡수 기능이 높은 가시나무, 느티나무, 애기동백 등 산림청 권장 수목 1만 2천834주를 식재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였다. 시는 향후 이곳에 숲과 더불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번 폐철도부지 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으로 산단 주변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철길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새롭게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탄소중립과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산단 주변은 물론 도심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오상호기자

광양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코로나19로 어려운 사업자 위해 2개월 앞당겨

광양시는 작년에 이어 6월 말부터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세무서나 지자체에 신고해 발생한 환급금(국세의 10% 수준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과세 대상이 동일)을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국제 환급 계좌(국세와 정보 공유)로 처리되며,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별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 등을 발송하고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5,604명으로 약 2억 1천만 원 규모이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환급처리가 진행된다. 광양=심종섭기자



보성 별교행정센터 내 태백산맥 터널 조성

소셜 태백산맥과 별교포막으로 유명한 보성군이 별교읍행정복지센터에 태백산맥을 형상화한 텃밭식물 터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별교읍 행정복지센터는 보성군 특색 있는 읍·면청사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

센터 진입로 2개소에 조롱박, 넝쿨장미, 애플수박, 하늘마, 작두콩 등 넝쿨식물을 심어 터널을 조성하고 있다. 이 터널에는 태백산맥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며, 별교읍행정복지센터는 터널을 녹색체험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성=김택순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 탄소중립 위한 나무식재·안전사고 예방교육

“나무심기 중요성 일깨워...근로자 안전 위해 최선”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오)는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식재 및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6개 국유림영림단과 공공산림기부기사업 근로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하이텍고 학생,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광양·순천산림조합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해서, 학교 내 유휴토지에 만나, 금목서, 심산해당화 등 7종의 수목을 약 100여 그루 심었다.

그동안 비어있던 학교 내 유휴토지에 나무식재를 통해 미래세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자연학습공간과 쉼터도 마련하였다. 또한 산림사업장에서 벌·진드기·뱀 등 독종류에 쉽게 노출되고 열사병·열경련이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를 요하는 계절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사고 발생원인 및 유형별 안전수칙, 기계장비별 안전작업 요령, 응급처치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다. 김경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의 실현으로 우리의 건

강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면서 “모든 산림사업의 기본은 사업 근로자의 안전이다.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전통 흙가마서 구워 낸 고흥 분청사기

고흥군은 지난 1일 500년 전 선조들이 사용하던 전통방식의 분청사기 제작을 위해 분청사기 도예강좌 수강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분청사기 흙가마 요출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에 위치한 재현 가마터에서 진행되었으며, 도예강좌 수강생, 전문도예가들이 분청사기의 7가지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분청사기 400여 점이 소성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행사는 6월 24일부터 30일

까지 분청사기 재입, 가마 불지피기, 가마 식히기를 마친 뒤 분청사기 요출이 진행되었다. 요출된 도자기는 대부분 제7기 도예강좌 수강생 제작 작품으로 90%의 성공률을 달성하였다. 이번 소성 행사에서 완성된 제7기 도예강좌 수강생 분청사기는 7월부터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며, 제8기 분청사기 도예강좌는 2021년 7월부터 수강생을 모집하여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본부

순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1주년 언론 브리핑

1년 간 성과·운영 방향 밝혀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제8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7월 1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1년간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순천시의회는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20년 7월 1일,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하며 제8대 후반기 시작을 알렸다. 8대 후반기 순천시의회는 ‘시민과 동행하는 따뜻한 의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난 1년 9번의 회기 동안 159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총 25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허유인 의장은 “앞으로 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진 서민경제를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된 사회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선기관포 선죽제인의 정신으로 미리 보고 멀리 보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앞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순천시의회의 각오를 밝혔다. 무엇보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전남 동부권 의료환경 개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

